미중 회담 실망과 전쟁 장기화 우려, 유가·금리 급변에 증시 약세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투심 악화에 기술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

- 미 증시는 DOW -1.07%, S&P500 -1.24%, NASDAQ -1.54% 하락. Russell2000 -2.40% 중소형주 낙폭 확대. 에너지 제외한 전업종 하락
-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유가 상승폭 확대, 국채금리 급등 보이며 시장 투자심리 위축. 최근 연이은 지수 사상최고치 경신에 변수에 민감해진 기술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낙폭 확대
- UBS는 현 시장의 AI 기업에 대한 기대가 과열 양상을 보임을 경고. 올해 AI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현금흐름투자수익률(CFROI)이 30%에 육박할 전망이나, 역사적으로 이를 10 년 이상 유지한 기업은 5 곳 중 1 곳에 불과했다고 설명. 현재의 눈높이는 AI 기업들이 역사상 존재했던 기업과 다르다는 가정을 매기고 있음을 설명

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유가·금리 동반 급등

- 미중 정상회담 일정 종료. 시장이 기대하던 성과는 '노딜'이라할만큼 부족했다는 평가. 특히, 중동 종전을 이끌만한 중국의 협력적 행보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'호르무즈 개방 의사 합의' 정도만 확인되면서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 하락, 국제유가 상승 WTI $105.4(+4.2%), Brent $109.3(+3.4%)
- 미중 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 협상 문제에 주력 예상되는 가운데, 강경 경고 발언 이어가며 변동성 확대. 한편, 주말중 이란은 UAE·쿠웨이트 등에 경고 및 에너지시설 공격 행보
- 유가 상승 및 물가 우려 확대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 10Y 4.595%(+13.6bp), 2Y 4.084%(+9.2bp). CME FedWatch 내년 1 월 금리 인상 전망 우세

견조한 경제지표 역시 매파적 금리정책 방향 지지

- 5 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경기지수 19.6, 전월·컨센 상회, 4 년래 최고치. 신규주문 및 출하가 강하고, 고용도 확장세를 유지. 반면, 가격상승속도 급등, 납기 지연 증가, 공급 여건 악화 우려도 상존
- 4 월 산업생산 MoM +0.7%, 전월·컨센 상회. 4 월 제조업생산 +0.6%, 전월·컨센 상회. 자동차·부품생산 +3.7%, 하이테크산업생산 +1.0% 등에서 지표 상승 기여. 하이테크 및 자동차 제외한 제조업생산은 +0.3%로 전월과 보합. 산업 설비가동률 76.1%(+0.4%p)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-4.4%	미중 정상회담 노딜 소식에 실망매물 출회되며 주가 약세.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H200 칩 대중 수출 승인 이후에도, 중국 정부 측에서 스스로 AI 칩 개발을 원하기에 수입 승인하지 않았다 언급
INTC	인텔	-6.2%	미중 정상회담 실망감에 따른 반도체 투심 위축, 가파른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주가 약세. 한편Citi 는 TSMC(-3.2%)의 AI 반도체 제조·패키징 경쟁력이 단기간에 인텔의 위협을 받기 어렵다 분석
MSFT	마이크로소프트	+3.1%	빌 애크먼의 퍼싱스퀘어 펀드의 대규모 신규 지분 취득 소식에 주가 강세. 에크먼은 Azure, M365, 재협상된 오픈AI와의 계약 등을 주요 이유로 지목. 반면, TCI 및 게이츠 재단 등 기존 투자자들은 최근 지분을 축소하고 있어 AI 투자 효용성을 둘러싼 의견차 존재
CSCO	시스코시스템즈	+2.3%	글로벌IB들의 릴레이 목표가 상향에 주가 강세. HSBC는 투자의견 '보유'→'매수', TP $77→$137로 상향 조정. BNP 파리바는 투자의견 '아웃퍼폼' 유지, TP $87→$132. 모건스탠리는 투자의견 '비중확대' 유지. 하이퍼스케일러향 매출 본격화로 FY26 AI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
NOW	서비스나우	+5.1%	엑스페리언(+1.3%)과 플랫폼 전반에 걸쳐 자율형 AI 에이전트 역량을 활용하는 다개년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주가 강세. 파트너십을 통해 단순 파일럿 단계를 넘어 기업용 에이전틱 AI를 대규모로 확장 및 상용화하기 위함